코오롱-효성, 필름공장 인수 감정싸움

고합 필름공장 매각 우선협상자에 코오롱 선정 … 효성은 공정위 제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인 고합의 필름공장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코오롱이 선정됐다.

채권단은 8월14일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코오롱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효성을 예비협상 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매각대상은 나일론 필름을 생산하는 고합 당진공장과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을 생산하는 울산공장이다.

매각가격은 2개 공장을 합쳐 4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8월20일경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실사를 거쳐 9월 중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합 당진공장은 식품과 음료병 포장재로 쓰이는 나일론 필름 생산능력이 9000톤이며, 울산공장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용 필름과 포장재로 쓰이는 PET필름 생산능력이 2만6000톤에 달하고 있다.

우선인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오롱은 고합의 필름공장을 인수를 성공으로 이끌면 세계시장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코오롱이 고합공장을 인수하면 식품과 음료병 포장재로 쓰이는 나일론 필름은 생산능력이 2만톤에 달하면서 세계 2위로 올라선다. 현재 1위는 일본 Unitika로 2만5000톤이고, 2위는 1만3000톤인 이태리 카파로이다.

또 오디오·비디오테이프용 필름과 포장재로 쓰이는 PET필름은 인수 후 생산능력이 9만6000톤으로 세계 6위를 유지한다.

필름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 호전이 예상되는 부문이어서 코오롱은 앞으로 이 부분을 현금창출능력이 높은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용 필름 등 정보통신소재 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발판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효성은 코오롱이 고합 나일론필름 공장(당진)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효성은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 남용의 기반이 되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고합 채권단이 코오롱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에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코오롱이 국내 필름사업에서 이미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합 당진공장을 인수하면 점유율이 72%로 독과점 상태가 확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이 고합 필름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동종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코오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효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공식 제소할 수 있는데 아직은 계약체결 전이어서 법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 기업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합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19>